



아프리카 침팬지의 연인, ‘희망 전도사’ 되어 한국 독자를 만나다

《희망의 이유》, 《인간의 그늘에서》로 잘 알려진 영국의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69) 박사가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1977년부터 세계 각국에 ‘제인구달연구소’를 설립, 영장류 연구와 환경운동을 펼친 그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의 영장류연구소 설립을 돕고, 환경보호 의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자회견과 저자 사인회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11월 11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침팬지와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대중들을 만났다. ‘동반자’로 불리는 ‘H씨(‘Hope’를 의미하는 침팬지 인형)’와 함께 많은 청중들 앞에 나타난 구달 박사는 침팬지와 인연을 맺게 된 과정부터 현재 진행중인 ‘뿌리와 새싹(roots and shoo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책으로만 만났던 독자들과 대면했다.

◎ 자연과 동물에 대한 열정, 케냐에서 찾은 ‘희망의 이유’

제인 구달 박사는 강연에 앞서 “네가 진정 무언가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정진한다면 언젠간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격려했던 어머니를 ‘내 영감의 근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을 키우도록 격려받았고 그 덕에 경이감과 경외감을 발달시켰다. 물론 그 과정에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던 어머니가 계셨다.

“23세 때 아프리카 케냐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결혼도 안한 젊은 여자가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어머니만은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분은 저와 함께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과 유대를 넓혀가는 데 도움을 주셨죠. 저는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고생물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루이스 리키 박사의 조수로 있었습니다.”

그는 숲에 사는 침팬지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성격부터 생활사, 가족의 형태, 대화법 등을 관찰했



《희망의 이유》
제인 구달 지음 | 박순영 옮김 |
공리 | 350쪽 | 값 9,000원

《제인 구달의 생명사랑 심계명》
제인 구달·마크 베코프 지음 |
최재천 옮김 | 바다출판사 |
272쪽 | 값 10,000원

다. 그러면서 침팬지가 인간과 얼마나 닮은 동물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 1960년에 찍은 탄자니아 국립 공원의 사진을 보면 맞은편에 있는 구달 박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침팬지들이 보인다. 그는 “이 침팬지들은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어요. 분명히 저 건너편에 흰 원숭이가 있다며 수다를 떨었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침팬지 소리를 내 관중들을 웃기는 여유를 보여줬다.

“4개월째였는데 침팬지 하나가 내가 준 바나나를 받아가더군요.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 직후 저는 첫 발견을 할 수 있었죠. 긴 풀잎을 갖고 사냥을 하는 침팬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을 떼어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닮았더군요.”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수단으로 털고르기를 하는 침팬지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폭력적으로 돌변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태도를 보인 침팬지도 있었다. 구달 박사는 혈연도 아니면서 버려진 침팬지를 데려다 키우는 침팬지에게서 ‘생명의 가치’와 ‘희망’을 찾았다.

◎ ‘take care’ & ‘roots and shoots’, 생명사랑 프로젝트

그는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먹을 것 없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take care’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침팬지 연구가 생명존중, 환경보호, 지역사회 연구로 확장된 것이다. 그가 1년에 300일 이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는 것은 “우리과 닮은 침팬지가 사라진다면..., 숲이 사라진다면..., 인류가 사라진다면...”이라는 가정 아래 ‘희망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다.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의 문제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회사들이 들어와서 열대 우림을 파헤치고, 침팬지들이 살 공간을 침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사라지면 사막이 되고 사막이 되면 침팬지들뿐 아니라 인간도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려 죽게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일들이 세계의 자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는 젊은이들로부터 ‘희망’을 발견한다. 1991년 탄자니아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이 그것을 증명한다. ‘루츠 앤 슈츠’라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침팬지를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지역사회를 돕고 나아가서는 먼 미래를 구하는 ‘희망 프로젝트’다. 16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모임이 지금은 68개국에서 3,000개 이상의 지역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이 된 것을 보면 구달 박사가 ‘희망의 이유’를 전하러 전 세계를 누빈 보람이 보인다.

“뿌리는 튼튼한 기반을 의미합니다. 새싹은 연약하지만 벽돌도 뚫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하구요. 루츠 앤 슈츠 프로그램의 회원은 하나의 개인으로서 지구의 미래에 대해 염려합니다. 유치원생에서 대학생까지 사람, 환경, 동물이 살기에 좋은 지구를 완성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하는 얘기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변화의 주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날 구달 박사의 강연회는 ‘뿌리와 새싹’의 기초가 되는 ‘생명사랑’ 이야기로 마무리 되었다. 9·11 사태 후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그는 지뢰가 터지고 난 후 남은 작은 종을 희망의 상징으로 높이 들어 보이면서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악덕했던 정권은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사의 강연을 들은 한 초등학생이 “뿌리와 새싹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죠?”라는 질문을 해 주목을 받았다. 박사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엄마, 친구와 대화한 후 바로 시작하라”고 대답하면서 관중석에 따뜻한 웃음을 전했다. 그가 침팬지의 연인에서 생명사랑의 전도사가 된 과정은 《희망의 이유》에서부터 최근 출간된 《제인 구달의 생명사랑 십계명》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

루츠 앤 슈츠 프로그램은?

루츠 앤 슈츠는 1991년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에서 16명의 학생이 구달 박사의 집 현관에 모여 앉아 만든 모임이다. 루츠 앤 슈츠는 환경, 동물, 지역 사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연을 지키기 위해 꽃을 가꾸거나 체험 캠프를 통해 동물을 만나고, 노인정, 요양원 등을 찾아 지역사회를 돕는 등의 실천을 한다. 이 모임의 회원이 되면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국제적 네트워크의 회원이 되어 구달 박사의 편지, 다른 나라의 그룹들이 나누는 생각과 정보 등을 담은 연간 소식지를 받고, 각 프로젝트를 잘 진행했을 경우 구달 박사가 서명한 인증서도 받게 된다.

www.janegoodall.org



이날 강연회를 마친 구달 박사는 책 사인회를 가지며 수많은 독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